

평창동계올림픽, 혈세낭비와 환경파괴 중단 촉구 강원도민선언

강원도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혈세낭비와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는 경기장 시설 재배치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. 재정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경기장 사후 활용을 위한 계획도 전무한 상황입니다.

수천억의 예산절감을 통해 강원도민의 민생복지를 확대하고, 500년 보호림 가리왕산 환경파괴가 중단될 수 있도록 강원도민의 목소리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우리의 요구

- 최문순 도지사는 흑자, 민생, 균형, 환경, 평화올림픽을 치루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라
- 강원도는 동계올림픽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부채와 민생복지 예산 축소, 경기장 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재정 문제 해결 방안 제시하라
- 강원도와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혈세낭비,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경기장 시설 전면 재배치 수용하고 IOC와 구체적으로 협의하라
- 정부는 대규모 국제스포츠 행사의 무분별한 유치와 혈세낭비 악순환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을 제시하라

성명	주소지(시군까지)	이메일	서명

※ 본 서명용지는 정부 관계 부처와 강원도,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, IOC에 제출됩니다. 서명운동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.

**평창동계올림픽, 혈세낭비·환경파괴 중단을 촉구하는 강원지역시민사회단체
(문의 :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, 254-2120)**